

대학생 취업문제, 대학의 본질적 기능 회복이 관건이다

부 미 현 | 한국대학신문 기자

글을 써내려가기에 앞서 이 글은 필자가 지난 10년 간 경험하고 지켜본 대학생사회의 변화상과 함께 대학생 취업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분석’임을 먼저 밝혀 둔다. 앞서 연재된 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대학생과 취업에 대해 접근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차원에서 함께 생각을 공유해 보고자 하는 취지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펼쳐져 있는 대학생들의 취업문제는 단순한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아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리라 믿는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갖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의 고민거리가 된 지 이미 오래다. 얼마 전에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소위 명문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대학생 모임이 정부에 일자리를 달라며 규탄대회를 벌이기도 했다. 노동자도 아닌 대학생들의 일자리 호소집회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많은 생각에 잠기게 만들었다.

I. 대학졸업장 먹히는 시대는 지났다?

필자는 이들의 호소를 지켜보면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더욱 실감나게 다가왔다. 십 여 년 전으로 거슬러올라가 보자. 지금의 30대 중후반 세대에 해당되는 당시 ‘대졸자’ 들에게는 적지 않은 일자리 선택의 기회가 제공됐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학졸업자라면 교수를 통해서든, 학과를 통해서든, 학교 취업센터를 통해서든 다양한 일자리가 소개됐으며 졸업장 하나만 들고서도 사회생활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잘나가는 대학의 일부 학과의 경우 졸업생들을 모셔가기 위해 기업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현상도 없지 않았다. 인턴사원도 적당히 회사 수습생활을 경험하고 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취업과 연결되는 비교적 ‘괜찮은’ 시절이었다. 대학졸업은 곧 멋진 사회인으로서의 출발을 의미했다. 취업 대신 대학원 진학이나 유학길에 오르는 것은 고고히 학문의 길을 걷겠다는 이들의 ‘선택사항’이었다. 오히려 요즘 절정의 인기를 구가하는 공무원직은 당시 대학사회에서는 이미지 때문에 선택 직업으로 삼으려 하지 않던 직종이기까지 했다. 지금보다 국민소득은 낮았지만 과거 대학졸업자들은 학력에 따른 보상에 대부분 만족하지 않았나 싶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핵폭탄이나 다름없던 90년대 후반 IMF라는 국가 부도사태 이후 대학가의 풍경은 확 달라졌다. 먼저 IMF 사태와 함께 대학을 졸업한 94, 95, 96학번 졸업생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신입사원을 채용하려는 기업도 없었고, 대신 부도로 회사를 잃은 직장인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갓 대학을 졸업한 이들과 일자리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언니, 오빠들의 전성기만 믿고 있던 졸업생들은 줄지에 패잔병 신세가 됐다. 그때부터 애매모호한 목적을 띤 대학원, 유학, 어학연수, 휴학 등의 러시가 이어졌다. 대학생의 신분을 유지하거나 더 높은 학력을 취

득하거나 둘 중 하나를 위한 것이었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이들은 일단 취업전선에 뛰어들었다.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을 막론하고 일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심지어 고등학교졸업자를 모집하는 업체에까지 대졸자들의 이력서가 쇄도했다. 이때부터 공무원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를 확 낮추고 경력을 쌓아가겠다는 실리파도 생겨났다. 이처럼 무한경쟁체제로 돌입하는 환란을 겪는 동안 소위 IMF 세대는 나름의 생존전략을 세울 수 있었던 것 같다. 적어도 환란이라는 구체적인 적과 싸웠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그 이후의 세대다. IMF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기업들이 다시 기지개를 펴고,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대학에 입학한 지금의 20대다. 대학가에서는 빠른 변화가 시작됐다. 고등학교졸업자들의 일자리까지 대졸자들이 잠식하자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긴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대학졸업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이에 질세라 대학들은 정원을 늘린 것이 원인이었다. 매년 대학졸업자가 급증했으며 대학의 기능 또한 취업을 돕기 위한 성격이 짙어갔다. 그리고 IMF를 이겨낸 일부 대기업과 환란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공무원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의 취업 선호도가 바뀌어갔다. 너도 나도 보다 안정적이고 대우가 좋은 기업으로 몰리면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짐에 따라 기업은 인재채용에 대한 눈높이를 계속 높여갔다. 10년 전의 기업과 대졸자의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이다. 기업에서 영어점수를 요구하면 대학생들은 재빨리 학원에 등록했고 현지인 수준의 영어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외연수를 떠났다. 대학 4년 동안 군복무 외의 이유로 휴학을 하는 이들도 대폭 증가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늘어나면서 시험준비에만 2~3년씩을 보내는 일도 다반사가 됐다. 취업을 미루고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자발적 실업자이기는 하나 일을 하지 않는 미취업 대졸자의 수를 늘리는 데 한몫했다.

II. 취업 위해 대학 간다?

이런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취업을 위한 전쟁도 대학입시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진학할 것이냐에 앞서 무엇이 나를 취업의 길로 이끌어 줄 것인가 하는 숙제를 푸는 것이 중대한 문제로 떠올랐다. 취업률이 얼마나 높은지가 학과 선택의 중요한 지표로 자리잡으면서 아예 이런 고민에 답을 주는 학과도 신설됐다. 성균관대의 휴대폰학과처럼 입학 시 대기업 입사가 보장되는 곳 말이다.

취업을 목표로 한 치열한 경쟁 덕분에 대학생들의 실력은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IMF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는 실력 차가 확연히 존재한다. 지금의 20대는 입시에서부터 보다 많은 경쟁을 경험하고 있으며 평가방식도 과거와 달라져서 논술 등으로 글쓰기 실력이 향상되고 토익, 토플 등 영어점수를 미리 확보해 놓는 등 외국어 실력도 상당하다. 일부에서는 이들의 실력이 오히려 예전 대학생들보다 못하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하지만 평균적인 지적 수준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그런데도 이들은 왜 일자리가 없다며 길거리로 나서야 하는 것일까?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대졸자 수가 증가하고 일자리가 그에 비례해 늘어나지 않는 것을 이유로 든다면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든지 아니면 취업 준비생들에게 경쟁에서 살아남으라고 다그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지금의 상황은 대학생들이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가 되기 위한 투자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이라는 결과물을 얻기 힘들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또한 대학생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좋은 일자리를 얻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취업을 못하는 이들이 나오자로 치부되는 분위

기 또한 이를 조장한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당사자들도 엄청난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들여 취득한 대학졸업장에 대한 보상을 취업에서 찾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강박관념이 더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취업문제가 20대가 고민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됐다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다.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취업을 목표로 두고 있는 만큼 취업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이는 그들에게 인생의 황금기라고 부를 만한 대학생활에서 아무 것도 성취하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높은 영어점수를 취득하고 해외 곳곳에서 글로벌 역량을 길러 자신의 이력서를 가득 채울 정도로 큰 성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라는 벽 앞에서 그것은 휴지 조각이 됨을 느끼는 순간 엄청난 상실감과 자괴감이 몰려올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실감은 종종 우울증이나 극단적으로는 자살에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취업을 하지 못한 이들이 투자한 시간과 노력, 지식들은 이렇게 방치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토익 900점을 얻은 학생 10명 중 1명만이 취업에 성공한다면 나머지 9명의 능력은 사회의 무관심 속에 사장되어야 할 문제인가 하는 것이다. 이들이 쏟아부은 에너지를 생각한다면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당연히 이들의 능력은 우리 사회의 성장동력이 되는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반드시 어디에선가는 이 능력을 발휘하고 자신과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 혹은 대학이, 아니면 대학생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선 다양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필요하다. 다양한 직업, 다양한 인성, 다양한 취향 등등이 보장된다면 그만큼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도 다양해질 것이다. 그래야만 적극적으로 취업시장에 뛰어들어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취업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호도하는 잘못된 정보도 줄여야 한다. 마치 그것만이 취업을 위한 유일한 방편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큰 문제이다. 오히려 현실에서는 대기업에서조차 이러한 틀을 벗어나 다방면의 능력검증을 통해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다.

우리는 최근 일련의 학력위조 사태를 접하면서 개인에 대해 비난하기도 하고 검증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학력위조가 성행하는 이유,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학벌이 왜 개인의 능력보다 인정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뒤늦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학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대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학벌이 변변치 못하다고 해서 개인의 능력까지 폄하한다면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에 대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가 자신의 일에 대해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두고 직업을 선택한다면 과연 누구의 기준에 따라 이를 충족시켜야 한단 말인가. 부모님이 원하는 기준인지, 친구가 원하는 기준인지, 아니면 사회평판에 따를 것인지 누구도 답할 수 없다. 내로라하는 대기업에 입사하고 나서도 '이 길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직장을 박차고 나오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목격한다.

III. 대학의 본질적 기능 회복이 관건이다

그 기준을 세우는 일은 대학과 개인이 함께 해 나갈 수 있다. 학생의 취업을 돕는 제도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다. 입사라는 전쟁을 치르면서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는 경험을 갖지 못한 학생들이 4년 간의 대학생활을 통해 진정한 삶의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물론 대학진학에 앞서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소신을 갖고 대학생활에 임하는 경우 이 같은 과정은 좀 더 빨리 진

행될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입시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눈앞의 목표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학에 입학한 뒤라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추진해야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냉혹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이다. 지금 학생들이 그와 같은 성찰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자기계발과 취업공부를 시간낭비라고 치부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에 앞서 자신에게 주어진 4년이라는 대학생활에서 좀 더 누리고 경험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온전히 개인의 몫이다. 전공공부뿐만 아니라 동아리활동, 학생회활동, 각종 소모임, 혹은 혼자만의 여행 등 고등학교 시절 꼭 막힌 교실에서 꿈꾸기만 했던 다양한 경험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대학생활이다.

그렇다면 대학이 할 일은 무엇인가.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해외연수 기회, 취업지원 등등에 적극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무게중심을 옮긴 나머지 대학이 수행해야 할 건강한 사회인을 육성하는 일을 뒷전으로 미루지는 않았는지 고민해 볼 일이다. 수강신청자가 많지 않은 인문사회분야의 강의를 폐강한다든지, 취업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학문분야에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한다. 학생들이 관심을 두지 않아 수업을 진행할 수 없고 폐강할 수밖에 없다는 지극히 경제적이고 소극적인 관점에서는 창의성을 가진 인재를 양성해 낼 수 없다.

대학이 단순히 직업인양성소의 역할에 머문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그다지 밝지는 않을 것이다. 기업체 사무원은 만들어 낼 수 있을지언정 미래를 설계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인재는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생겨난 신선한 아이디어들, 아무도 시도해보지 못한 길을 가는 선구자는 누가 키워 나가야 할 것인가?

최근 이영미 대중예술평론가가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칼럼내용을 보면 공감이가 간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의 대학의 의미는 독특하다. 고등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일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어른으로 성장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것이 중요해지는 것은 선진국들과는 달리 고등학교까지의 삶이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독하게 억압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대학 4년은 일생을 통틀어 삶과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간이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일생을 살아야 하는지 등등의 생각을 정리하고 비로소 어른이 되는 시기라고 이씨는 덧붙였다.

필자의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다. 자신에 대한 성찰을 이룬 뒤 미래를 계획하고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 사회 전반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모두가 공무원이 되고, 기업의 사무원이 되고 공기업에 다닐 수 있다 해도 그것은 껌데기일 뿐이다. 뒤늦게 자신이 원하는 일과 행복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이미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대학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인가. 사전적으로는 여러 학문분야를 연구하고 지도자로서 자질을 함양하는 고등교육기관이라 풀이되어 있다. 유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른들이 하는 학문이라는 뜻과 삶의 도리를 배우는 철학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이기동 성균관대 교수(유학과)는 그의 저서에서 설명하고 있다.

결국 대학이 이러한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할 때 취업문제로 허덕이는 대학생들의 짐을 덜어 줄 수 있을 것 같다. 대학에서 목말랐던 지식의 우물을 팔 수 있도록, 그리고 삶의 목표를 세우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우리 대학사회가 취업률 1%를 올리기에 앞서 진정으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다. 